

“한 사람의 벼, 모두의 벼”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6. 06/07

통권 315



소록도 원생 피부미용봉사

“하나의 벼, 모두의 벼”



한 벼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휠체어날개달기

(미얀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아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얀마방정환(어린이 잡지 기증)

(어린이잡지 1,000권을 미얀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벳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영)

치매인 나들이 봉사대 운영

호스피스 소원여행지원

(말기환자 무료여행)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축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소록도 원생과 어울린 5박 6일



케이블카로 두륜산에 오르다



병실입원 중인 소록도 가수 장인심 여사



진주 남강변 산성 산책

6월 25일~30일, 5박 6일 동안 하루 관광과 피부미용을 해드렸습니다. 더욱이 소록도 원생이 처음 받아본 피부미용은 대학교수와 피부미용원장, 발관리 최고 권위자와 한국미용학회장 등이 참여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베풀었습니다.

케이블카로 두륜산에 오르다

□ 봉사대원(14명)

- 피부 미용(8명) : 최경임 교수, 김해남 교수(한국미용학회장), 강선영 원장, 김수자 대표, 김정미 대표, 박선미 교수, 이정자 원장, 조윤희 원장
- 원생 관광(6명) : 김혜명, 백진앙, 이경화, 이용현, 조정복, 한동훈

□ 차량지원 :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소형버스와 승합차/2대

□ 선물전달(원생자치회) : 사무용 컴퓨터 5대(사랑의 PC기증본부), 선그라스 30개(이경화) 피부미용 화장품 70개, 슬리퍼 10개

후원해주시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강영숙(회원) 100만원, 권진동(이사) 30만원, 김혜명(이사) 100만원, 백진앙 20만원, 변상순(소록도간호조무사) 10만원, 이선영(회원) 20만원, 전숙희(전 교육복지연구원 대표) 10만원, 최경희(전 소록도간호사) 20만원, 황원경(전 직원) 5만원.

〈하루 관광〉 : 원생 42명, 3회 관광코스 - ① 두륜산 케이블카 ② 남원 광한루와 화계장터 ③ 진주 산성과 축석루

〈피부미용서비스〉 : 원생 62명

〈소록도 역사 기행〉 : 봉사대원 14명

처음 받아본 피부미용 서비스

피부미용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다. 먼저 보드라운 손길이 얼굴을 다듬으면 피부의 얇은 숨 소리가 들린다. 이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깨끗하고 맑게, 촉촉하고 탄력 있게’ 정성 어린 손길과 마음이 어울린다. 고마운 손과 피부의 즐거운 속삭임!



‘피부미용이 뭐 당가?’

‘피부미용이 뭐 당가?’ 며 하나 같이 연로하신 60여 분이 모여들었다. 소록도에서 피부미용은 처음 이란다. 모두 아기처럼 요에 아기처럼 눕는다. 피부미용은 얼굴뿐만 아니다. 손과 발, 어깨마사지까지 이어진다. 금 새 몸이 풀어지고 마음이 녹는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내 얼굴이 사랑받는 시간! ‘아이고 참말로 고마운 거, 언제 또 온당가?’

내 이 못난 손을!

손가락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작은 생강손. 봉사자가 뭔가를 바르며 만지고 또 만진다. 아, 이 손으로 모진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을 까! “내 이 못난 손을 이렇게 오래 만져준 사람은 여태껏 없었당께.” 82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든다. 돌아 나오는 봉사자 눈도 붉어진다.



많이 변한 소록도

80~90년대 뵈었던 원생 대부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입원실에 누워계신다고. 지금은 정착촌에 살다 나이 들어 소록도로 들어오신 경우가 많다. 기초수급비를 받는 데다 병원이 옆에 있고 수시로 간호 인력이 돌봐주는 최고의 요양시설이 되었다. 섬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을 안치한 만령당에 머리 숙여 기도를 올렸다.

치매인 나들이봉사대 결성



실내 갯혀 지내는 치매인에게 하루 관광을 시켜드리는 자원봉사자들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참여 봉사자(6월 현재)

권영혜(회사원), 김강수(음악인), 김혜명(재단 이사), 민승현(회사원), 박우성(철들지 않은 사람들), 백진양, 송지민(회사원), 신정훈, 최월숙, 양 완(회사원), 양혜경(대학생), 이경화(회원), 이용현(직원), 전숙희(전 교육복지연구원 대표), 조정복(회원), 최명숙(재단 이사), 한동훈(직원), 함경숙, 함인숙(‘철들지 않은 사람들 대표’) / 19명(7월 1일 현재)

치매 어르신을 추천해주세요.

적은 인원로

나들이는 적은 인원로 꾸밈니다. 한 번에 최대 5명, 두 분만 신청해도 떠납니다.

치매어르신 : 봉사자=1:1로 모시며, 재단이 차량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무료 관광

넓게 펼쳐진 바다 해변 걷기, 꽃 정원 산책, 동물공원에서 먹이 주기 등 서울 근교의 다양한 관광지로 갑니다. 맛있는 음식, 간식도 제공. 오전 10시~오후 5시. 치매 어르신이 원하는 날짜,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노인주간보호실을 이용하는 분은 주간보호실이 휴무인 날로 잡으세요.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치매인과 함께 하면 많은 것을 깨닫는 아주 유익한 활동입니다.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주위에 권해주세요.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 신청 : 02-393-0661

치매인 나들이 비용은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나들이봉사에 참여해 주세요.

기부금 계좌 : 국민은행 640601-04-024771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세상에서 밀려난 치매인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치매인

한벗회원이던 K씨가 2년 전부터 치매가 나타났다. 자영업하던 그는 생업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부인과는 이혼했기에 혼자 산다. 하나뿐인 아들은 독립했다. 올해 63세. 한창나이이지만 할 일이 없다. 이제 치매 걸렸다고 친구조차 만나주지 않는다.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할 일이 없다

아직은 잘 걷고 혼자 밥도 잘해 먹는다. 운전대는 놓았지만 지하철 탈 수 있고, 핸드폰도 쓸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 되어 정부가 주는 한 달에 50만원으로 집세 내고 먹을 것을 산다. 문제는 할 일이 없는 노릇. 공짜 점심 먹으러 복지관에 오가는 일이 전부이다.

한국의 치매인

치매 걸리면 노인일자리조차 못 얻는다. 또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여러 혜택도 못 받는다. 나라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증세가 심해지면 주간보호실이나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곳은 문밖을 나갈 수 없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치매인구 100만명 수출 1조 달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치매 걸리면 쓸모없어진다는 건 우리 생각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어울려 산다. 식당과 마트, 카페, 농장 그리고 배달업과 행사 안내, 반려견 산책과 방문교사로도 일한다. 차이는, ‘치매 걸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치매인 일자리 만들기

7월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치매인 나들이 봉사하고 있다. 늘 실내에 갇혀 있는 분들을 열린공간으로 데려가는 일이지만 실은 목표 하나가 있다. 경증치매인에게 나들이보조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산책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게. 다른 나라는 되는데 우리 왜 안 되겠는가?

어르신께 장수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블리스유 미용학원의 메이크업 봉사



레플레르 스튜디오의 사진 촬영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블리스유 미용학원 봉사자들이 어르신들 메이크업 해드리고, 이 지족지구 어린이집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달고 레플레르 스튜디오봉사자들이 장수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봉사해주신 미용학원과 스튜디오 그리고 어린이들, 고마워요!



어르신 54분, 민속촌 나들이

스카이 관광에서 버스를 보내주시고, LH8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선 간식을, 고양여성의용돌봄소방대원들의 동행봉사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용인 제일의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요.

포스코이앤씨와 함께하는 치유 반려식물 나눔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탄소저감형 친환경 토양 개량제 'RE·CO소일'을 활용해 공기 정화식물 화분을 제작해 LH8단지 어르신들과 지족지구 경로당 3곳 총 200명의 어르신께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봉사단과 우림복지재단, 치유농장 온유원과, LH8단지 주거복지지원단, 지족마을을 원예동아리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용인 건강검진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올해로 3년째 이용하는 ‘서울DMC건강의원’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빠르게 검진해줍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른 식구들이 병원에 도착하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명규 씨는 ‘따끔 ‘하며 바늘을 찌르자, “하나도 안 아프다!”고 큰 소리로 외쳐 웃음바다가 되었고, 앞을 못 보는 만용 씨도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악! 하고 큰 소리를 냈지만 곧바로 “어, 하나도 안 아파요”라고 외쳐 모두 안심했지요.

검진을 빨리 마친 덕에 점심도 제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후원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4월17일 ~ 6월16일)

[개인]

김기민 · 홍승혜(후원자) 생일 케익. 김도연(후원자) 생활용품. 김설화(후원자) 의류.
 김양지 · 이선우(후원자) 과자 두루마리 휴지. 김인곤 지인(후원자) 요구르트, 제육볶음.
 김재형(재활치료사) 커피 및 음료. 김진수(직원) 사과즙, 쿠키. 남철호(후원자) 비타500.
 마임헤어원장(후원자) 빵. 문은주(후원자) 피자, 과자. 박봄이(후원자) 케익, 과자, 음료.
 박주용 어머니(이용자) 각종 나물, 감자, 김치. 손지용(후원자) बे지밀. 신옥실(후원자) 과자.
 안태웅(후원자) 생활용품. 여일구(후원자) 치킨, 아이스크림. 이승아(지역주민) 책, 생활용품, 의류.
 이정선(후원자) 블루베리, 생활용품. 이정주(후원자) 가방. 이찬웅(후원자) 생활용품. 장지은(후원자) 음료, 과자.
 조용환(후원자) 생활용품. 지만용 아버지(이용인) 샤워기. 진정민(후원자) 짜장면. 한윤경(후원자) 생활용품

[단체]

당가원 짜장면, 볶음밥.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부흥세탁소 식재료 김.
 피노키오 생닭. 백기완(재단 후원자) 스피커.

숙명여대 로타렉트 봉사동아리 고마워요



미술관과 정원 산책 나들이

오랜 기간 우리 주간보호실에서 봉사를 이어가는 숙명여대 로타렉트 봉사동아리 8명이 지난 5월 이용자 8명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1:1로 짝을 이루어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관람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심하고 다정히

점심을 먹은 후에는 정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해 쉬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 봉사 학생들은 내내 밝은 모습으로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반응을 살펴 충분히 기다려주고, 눈높이를 맞추며 세심하게 보살펴주었습니다. 함께 웃고, 다정히 발걸음을 맞춰준 봉사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모두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 로타렉트 봉사동아리 회원들 고맙습니다.

봉사해주신 분

숙명여자대학교 : 강민주, 강민지, 김대건, 김민혜, 김시운, 김윤경, 김지은, 김하연, 박가훈, 박소혜, 박수혜, 박효원, 양다연, 우승아, 우은민, 윤지원, 이서영, 이예은, 이은서, 이채원, 임소연, 임하리, 전소원, 정시은, 정승원, 정한나, 최서운, 최유리, 황서현.

후원품

- 푸드뱅크 : 빵 60개, 화장품 2박스
- 구세군 희망 나누미 : 떡볶이 떡 5박스

한빛의 특별한 여행

와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모시고 설악산-정동진 다녀왔습니다.



말기환자 두 분의 호스피스 소원 여행



갑갑한 병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숲길 산책



“아버님, 이제 마지막 절을 받으세요!” (말기 환자 성모 여행)

미얀마 음악전문학교, 컴퓨터 교실 기증



미얀마의 하나뿐인 음악전문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기증했습니다. 양곤에 있는 이 학교는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로 7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한빛이 기증한 4번째 컴퓨터 교실입니다.

황기순 선생의 유아차 200대, 미얀마로



코미디언 황기순 선생이 거리 모금으로 기부해 주신 덕분에 중고 유아차 200대를 수집해 7월말 미얀마로 보냅니다.

미얀마 장애아동 엄마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면생리대 1,000매와 도화지 500장도 함께.

제3회 전미주 달라스 장애인체육대회



지난 6월 5-6일에 열린 「제3회 전미주 달라스 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장덕환 선생(한벗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김윤원 이사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엔 장애인 선수 139명 포함 292명과 봉사자 2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별기부금 큰 도움 받았습니다.

민병욱(유진메디케어 대표) 300만원, 성원용(전 서울대 교수) 50만원, 지영선 2만원.

유희철(유아차 기증) 10만원,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10만원.

정재호(날개달기 회원) 100만원, 한동훈(직원) 387,300원

※ 소록도 봉사대에 기부자 명단→ 1쪽

정기 기부금을 올려주셨네요! 「찬성현」(청년한벗회원) 1만원→ 5만원

새 기부회원이 되신 「이금진」, 「윤승묘」 님 고맙습니다.

이동봉사대원으로 활동하신 「홍상문」 화백이 갑자기 지난 4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이 홍 화백이 쓰던 전동휠체어를 보내주시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힘, 열정!

26.5월~6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한빛재단>

미국 교민 기부금 \$1,620 (5월, 6월)				
달러스 : 계 5,6월 \$800		킬린 : 계 5,6월 \$820		
김윤원 \$200(2)	아리 \$10(2)	강학희 \$20(2)	미영 로사 \$20(2)	전 이사벨라 \$20(2)
스텔라 \$150(2)	이안 \$10(2)	고향미 \$20(2)	배경재 \$40(2)	장지수 \$20(2)
	루빈 \$10(2)	김은희 \$20(2)	백 수산나 \$30(2)	조 마리나 \$20(2)
	노아 \$10(2)	김 데레사 \$20(2)	염창순 \$20(2)	조용순 \$20(2)
	제롬 \$10(2)	김 헬렌 \$20(2)	유 베로니카 \$20(2)	최정임 \$30(2)
		김정자 \$30(1)	이영란 \$40(2)	카니 박 \$20(1년치)
		김해중 \$20(2)	이정숙 \$20(2)	

▶ 1,000원 문숙자(2)

▶ 2,000원 김계순(덕양/2)

▶ 3,000원 강희춘(2)

▼ 5,000원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군(2)

구재순(1)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1)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김시현(2) 김영희(2) 김유경(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나호연(2) 류소연(2)

문혜원(1) 박범진(1) 박병건(2) 박상준(2)

박정민(2) 박지현(2) 설대호(2) 양윤모(2)

엄민애(2) 엄해영(2) 오형균(2) 우종화(2)

유경희(당산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성호(2) 이승희(2) 이양훈(2) 이용현(2)

이재현(2) 이정문(2) 이정자(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영익(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병문(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미(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 10,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남순(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구(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석(2) 김교일(2) 김근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상순(1) 김수리(2) 김수현(1)

김숙자(2) 김영지(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1)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중용/전정원(3) 김준혁(2) 김준형(2)

김김진원(안산2) 김진희/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식(2) 김혜정/이해든(2)

김화중(2) 남기명/유범려(2) 노수진(2)

노현옥(2) 도현정(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반종대(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백운채(2) 서동범(2) 서미란(2) 서상웅(2)

서영란(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성아(2) 신인아(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엄해경(2) 오상만(2) 오성곤(2) 오용석(2)

오윤서(2) 윤남일(2) 이건수(2)

이금주/최영하(2)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1) 이민숙(2)

이상일(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인보광/박수빈/박혜빈(1)

임경민(2) 임동상(2) 임윤아(3)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민우(2) 전소연(2)

전현규(2) 정규성(2) 정미영/김경석(2)

정봉열(2) 정성훈(2) 정수연(1) 정수익(3)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1)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권희정(2)

조재선(2) 조정복(2) 조진영(2) 조확기(2)

지형근(3) 천성현(1)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소희(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2) 추정일(2) 태효원(2) 한성진(2)

한영주(2)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1) 황연희(2)

황정일(2) 황태현(1)

▶ 15,000원 김병석(1) 현영돈(2)

▼ 20,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1) 강순화(2)

강영철(3)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보경(제천2) 김승태(2) 김영복(2) 김영자(1)

김은영(1)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2) 서성민(2) 석창록(1)

신광재(2) 신금옥(2) 신호숙(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정혜진(1) 조윤식(2)

최재명(1) 한덕희(2) 한충길(1) 현승혜(2)

▼ 30,000원

강재철(2) 금재호(2) 김은경(1) 김홍현(2)

나효진(2) 민정범(2) 박상우(고양2)

박용길(1) 오창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양재(2) 이희달(2) 임용재(2)

장해실(1) 정수화(2) 최경희/윤승균(2)

▶ 35,000원 박종성(2)

▶ 40,000원 서판임(2) 정병배(2)

▼ 50,000원

고명지(2) 김은주(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신화용(2)
알티엑스포츠(2) 윤지연(2) 이정숙(2)
이종우(2) 천성현(1) 최해자(2)

▶ 62,500원 조정복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헬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박지연(2) 안성환(2) 유영옥(2)
이승수(2) 조홍준(2)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임인경/최홍식(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 2)

〈휠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이명희(2) 김명석(1) 김순영(2)
김순이(2) 김영희(2) 김용환A(2) 김재애(2)
김정자(3) 김정태(2) 김창복(2) 김태윤(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1) 박복희(2)
박수경(2) 박신자(2) 박옥자(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어수향(2)
오원희(2) 이가영(2) 이금진(1)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지혜(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1)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옥순(2) 전해경(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문향(2) 조용환(2) 조혜숙(2) 주필봉(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1)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1)

▼ 20,000원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영옥(2)
김옥주(2) 김이태(2) 김일생(2) 김효생(2)
민병임(2) 민선숙(1) 박순신(6) 박신용(2)
오문영(2) 이상희(2) 장연우(2) 장혜실(1)
전승탄(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광원(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선정(2) 김옥수(2) 이태자(2)
정재호(2) 최진경(2)

▼ 50,000원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 120,000원 최명숙(2)

〈한빛동지〉

▶ 1,000원 진권(2)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호순(2)
길현(1) 김계자(2) 김민서(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창범(3)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채운(2) 이윤경(2)
이혜란(2) 임정혜(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 10,000원

강순기(2) 강인수(2) 강훈선(2) 고유미(2)
곽영현/장형기(2) 곽우경(2) 구성모(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규리(2) 김기래(2)
김도연(2) 김도현(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아(2) 김미미(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봉주(2) 김상수(2)
김상옥(2) 김상한(2) 김서영(2) 김석겸(2)
김선옥(2) 김선향(1) 김선혜(2) 김성길(2)
김성윤(2) 김성현(2) 김세연(2) 김양지(1)
김연경(2) 김연숙(2) 김연주(1) 김영승(2)
김영진(1)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곤(2) 김인숙(2) 김정미(2) 김정석(2)
김정우(2) 김종국(2) 김종애(2) 김지안(2)
김진수(2) 김철호(2) 김태연(2) 김현중(2)
김혜정(2) 김호영(1) 남철호(2) 노선이(2)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박리라(2)
박미숙(2) 박일현(1) 박상정(2) 박원하(1)
박은숙(2) 박장훈(2) 박정신(2) 박정일(2)
박준희(1) 박지원(2) 변기정(2) 서동연(1)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형석(2)
서희주(2) 성다혜(2) 신승희(2) 신옥실(2)
안영미(2) 양용열(2) 양현석(2) 여운학(2)
여일구(2) 오광진(1)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2) 이경혜(2) 이규원(1) 이상수A(2)
이상수B(2) 이상우(2) 이성림(1) 이성숙(2)
이소정(2) 이승연(2) 이승재(2) 이연호(2)
이영금(2) 이영순(2) 이예인(2) 이예준(2)
이원준(1) 이원철(1) 이은서(2) 이재호(2)
이정선(1)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숙(1)
이지안(1) 이지영(2) 이진희(2) 이태랑(2)
이태환(2) 이혜원(2) 이희권(2)
인보광/박수빈/박혜빈(1) 임경주(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승희(2) 장은정(2) 장철만(2) 전에스터(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정예진(2) 정완교(2) 정윤성(2) 정은숙(2)
정진하(2) 정한영(2) 조규연(2) 조수연(2)
조순예(2) 조인규(2) 진정민(1) 최경희(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최은채(2) 최종금(2) 최희정(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허지원(1) 황진숙(1)

▼ 20,000원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현정(2)
김희량(2) 문은주(1)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옥(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용현(2)
이정림(2) 조기택(2) 정현주(2) 하복덕(2)
한혜림(2)

▼ 30,000원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대균(2)
김문정(2) 김시연(2) 김윤영(2) 김지윤A(2)
김지윤B(2) 김현도(2) 박희수(2) 오범균(2)
윤일심(2) 이웅기(2) 임재창(2) 정은영(2)
조길용(2) 조병훈(2) 채순옥(2) 채한석(2)
최갑석(2) 함정자(2) 황정현(2) 홍승혜(1)

▼ 50,000원

곽형우(2) 김간란(4) 김장옥(2) 김종호(2)
김호성(2) 박상봉(2) 박운화(2)
이호갑/윤미선(2) 정병권/김문희(2) 조성윤(2)
조향미(2) 홍영미(2) 70,000원 백승열(2)

▼ 100,000원

권영수(2) 유정자(2) 열림교회(2)

▼ 200,000원

목양교회(1) 서부지검(1) 하대주(2)

▼ 1,349,000원

서강어린이집(1)

〈한빛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10,000원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50,000원 김혜원(2)

▶ 70,000원 최수진(2)

▶ 100,000원 오유인(2) 차성안(2)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0,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박채련(2)
양영춘(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최금열(2) 최수경(2) 한정환(박종미)(2)
홍봉기(2)

▶ 15,000원 김민정(2)

▼ 20,000원 김정훈(2) 김중범(1)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 50,000원

신현관(2) 심진섭(2) 장안태(2) 홍지웅(2)

〈미안마어린이합창단〉

▶ 3,000원 서지영(2) 성주일(1)

▼ 5,000원

강신선(2) 김갑성(2) 김세현(2) 천만용(2)

▼ 10,000원

김광기(2) 김양우(2) 김희정(2) 민성숙(2)
박향림/비영리단체참빛국제협회(2)
성일경(2) 심혜숙(2) 안재은(2) 오세현(2)
원영철(3) 이성순(1) 조천희(1) 최광익(2)

▶ 20,000원 서수진(2)

▶ 30,000원 유근(2)

▶ 50,000원 주혜란(2)

〈호스피스 소원여행〉

▼ 10,000원

박봉애(1) 박정선(2) 이수현(1)

▶ 20,000원 최명숙(2)

▼ 50,000원

김일생(2) 박현성(2) 백기완(1) 백진양(2)
현정선(1)

〈기부금 보내는 계좌〉

한빛재단 본부

국민 763601-04-002564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미안마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미안마어린이합창단

국민 763637-04-004336

호스피스 소원여행

국민 763601-04-155077

치매인 나들이 봉사대

국민 640601-04-024771

한빛동지

국민 577301-01-127870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실

국민 763601-04-078400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통권 315호

폐년날 : 2026년 7월 10일

폐년이 : 한빛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이승일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빛,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번호

한빛동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축복지관 : 02)381-8938

한국휠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재정보고 (26.4월~26.5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부금	정기기부(재단)	12,400,000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	9,425,228
	특별기부금	8,507,300	시설지원	등지, 주간보호, 지축	10,425,000
	미국 교민 기부금	2,611,500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11,391,486
	등지/주간	5,225,000	업무비	직책 보조비 등	1,276,100
	날개달기	5,420,000	간행비	소식지 간행, 우송	1,650,730
	방정환 기금	1,758,000	공과금	보험료 등	846,240
	미안마합창단기금	499,000	사업비	휠체어날개달기	4,680,000
	최준수 기금	185,000		방정환 기금	3,416,000
	호스피스소원여행	2,510,000		한빛투어	3,700,000
	소록도 봉사	1,550,000		소원여행	422,000
임대수입	보증금,관리비 등	7,985,990		소록도 나들이 봉사	600,000
사업수입	휠체어 대여 등	1,115,000		기타사업비	515,200
	한빛 투어	1,000,000	상환금	이자	2,417,101
			반환금	반환금	11,805
총 계		50,776,890	총 계		50,776,890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사항입니다.

소록도에 가면 <이 추> 할아버지 하모니카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는 13살 때 통곡하는 어머니 손을 놓고 집을 나와 떠돌다
 순경에 붙잡혀 소록도로 왔다. 17살 푸른 나이였다.
 그 시절 소록도는 노동판이었다. 배를 굶고 모진 노동에 시달리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졌고 급기야 눈까지 멀게 되었다.

내가 이 모양이 된 걸 우리 어머니가 아실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모니카를 불었다.
 섬에 들어간 지 50년 만에 처음 육지 땅을 밟았다.
 한빛의 맹인하모니카합주단 서울 초청공연 때였다.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하모니카를 불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센병보다 무서운 병



〈한센〉

인류를 괴롭힌 한센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째도 아니다. 한센병은 수천 년 동안 동·서양에서 치료약을 찾지 못해 천형(天刑) 곧 〈신의 저주〉로 불렸다. 150년 전 비로소 전염균을 찾긴 했지만 현대의학도 배양하지 못하는 이상한 균이다. 그래서 유전병이라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기 몸에 균을 넣은 한센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이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이 균을 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균이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동물에게 넣었지만 감염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기 몸에, 심지어 당대 최고의 군 권위자이자 장인인 〈다니엘슨〉의 몸에도 넣었다. 그래도 안 되자 급기야 이 병에 걸린 환자의 균을 허락 없이 환자 눈에 넣었다. 그래도 실패하고 말았다(한센은 이 일로 의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다시 오리무중이 되었다.

정복된 한센병

자기 몸을 실험 도구로 쓴 〈다니엘슨〉과 〈한센〉의 위대한 희생은 이후 치열한 연구로 이어져 1941년, 미국 의사 〈기 파제〉가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확인되었다. 무려 68년 만이지만 드디어 인류사의 괴물을 정복해 수천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특효약이 전염력을 잃게 해

한센균은 결핵균과 비슷하지만 전염성은 1/100에 불과한 피부병이다. 하지만 완치되어도 얼굴의 피부 발진 흔적이 남고 손·발의 감각 마비로 잘린 모습이 보기 안 좋아 오해를 낳는다. 전염은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장기간 직접 접촉한 경우이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거의 감염 안 된다. 또 약을 먹으면 2주~2개월 안에 전염성이 사라진다.



한센병보다 무서운 것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은 퇴치되었고 재발 사례가 있지만 약물로 완치된다. 그러나 치료약이 나온 지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치된 환자들 이 따돌림당하고 있다. 병보다 무섭고 진실보다 강한 것이 이기적인 편견이다.

무서운 건 병보다 사람이다.

◀소록도 맹인환자 하모니카합주단 공연 모습